

지역 소식통

김제고용안정지원센터
김제성모간호학원 MOU

김제 고용안정지원센터(센터장 김태한)는 전문직종 일자리 창출을 위해 김제성모간호학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최근 코로나19 여파 등 의료분야 업종 및 의료 인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양 기관 간에 체계적인 취업연계 플랫폼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종감염병 발생 등에 신속히 인력을 지원해 대응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김제 일자리센터는 의료직종 및 간호교육생 등 구직자 인력풀을 확보하고 이들에게 적극적인 취업 알선과 다양한 취업 정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태한 센터장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료 인력에 대해 유관기관 간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취업을 연계함으로써, 안정적인 고용을 창출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급증하는 의료 수요에도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완주군이 8월까지 산림보호원을 동원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지난 24일 완주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보호원 107명을 투입,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지이용 미등록 야영장, 불법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폐기물 방치, 불법산지훼손 등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고 적발행위에 따라 관련법에 의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반장원 산림복지과장은 "산림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군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원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은 물론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과 산불예방 활동을 병행하는 등 산림보호를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상관면, 경로회관 운영재개

27일부터 방역 조치 강화해 '무더위 쉼터'로 운영... 오전 12시부터 5시까지만 운영

상관면은 코로나 19로 인해 중단했던 경로회관 운영을 27일부터 재개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어르신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상관면은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2월 7일 이후로 중단했던 경로당 운영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방침에 따라 27일부터 '무더위 쉼터'로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관면은 22일 상관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관내 25개소 경로회관 및 총무 등 경로당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당 운영재개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경로당 운영에 따른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경로당 운영 재개 방침'에 따르면



각 경로회관마다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체온계, 손소독제 및 모니터링 대장 등을 비치하고 운영시간은 오전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하고 식사는 일절 금지하기로 하였다.

상관면장은 "경로회관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회장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체계를 강화하여 어르신들이 경로회관을 걱정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도울 예정이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제8기 시정모니터 위촉·간담회

시민이 직접 참여 소통하는 열린행정 구현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 제8기 시정모니터 위촉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박준배 김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모니터 33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모니터 활동요령 교육 등이 진행되었다.

시정모니터는 김제시 주요 시책과 활동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개선방안을 시민과 함께 고민

하고자 만들어진 시민 참여제도다.

이번 제8기 시정모니터는 30대부터 60대까지 폭넓은 연령대와 농민,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별로 구성되었으며 2022년 6월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이번 시정모니터는 다양한 시민들로 구성된 만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모니터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라며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

변하는 가교역할로서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제시 특수시책 사업인 시정모니터는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위촉된 신규 모니터를 포함한 133명의 시민들이 각종 시정 아이디어 제안, 주민불편사항의 개선을 위한 제보 등의 활동으로 정책파트너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SNS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 참여행정 구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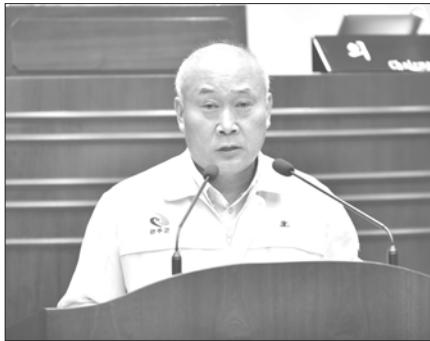
완주군의회, 제253회 임시회... 10일간의 의사일정 마무리

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는 지난 23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8대 후반기 상임위원별 부위원장으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소완섭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인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의식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특히 23일 2차 본회의에서는 소완섭(용진·봉동) 의원이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완주산단 열병합발전소 바이오 고행연료(SRF) 사용허가 논란, 적극 대응해야'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지난 14일부터 개최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청취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 계획안 1건, 의견 청취안 2건 총 12건을 심의·의결했다.

'완주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2항에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신설해 수정 가결 됐으며, 완주군 응치·이치 전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은 원안 가결됐다.

김재천 의장은 "제8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임시회인 만큼,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일하는 의회, 군민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의회를 이뤄내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청년 정책참여 높인다

청년정책학교 열어 참여방법과 수립과정에 대한 교육 진행

완주군이 청년들의 정책참여를 높이기 위한 청년정책학교를 열었다. 지난 24일 완주군은 대회의실에서 청년정책협의체인 청년정책이장단 및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3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교육을 추진했다.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는 서울시 청년청에서 운영하는 교육으로 청년정책이장단과 지역청년들에게 청년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고 정책 참여방법 및 수립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자리로 진행됐다.

청년정책이장단은 올해 새롭게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로 청년 관련 각종 정책 제안, 군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 청년간의 교류와 소통 창구 및 청년정책에 대한 홍보도 담당하고 있다.

이 교육을 통해 청년주체들은 정책 발굴 제안과정에 필요한 타지역 사례 및 문제해결 노하우를 공유했다.

안형숙 사회적경제과장은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2021년 청년참여예산에 청년당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이 발굴 제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 청년참여예산 사업은 2017년부터 시행했으며, 2020년까지 16개사업 5억8000만원 예산으로 청년정책이 발굴 시행됐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드림스타트, 여성가장 긴급지원 이뤄져

완주군 여성가장에게 긴급지원이 이뤄졌다.

지난 24일 완주군은 바보의나눔이 진행하는 여성가장긴급지원사업에 드림스타트 가정 1세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발생한 '송과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시작한 이 사업은 비정규직 종사자 또는 실직한 여성 가정에 의료, 주거, 생계 등 긴급하게 비용이 필요한 분야를 지원한다. 완주군드림스타트 아동은 사업 선정 이후 총 400만원의 주거, 의료,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됐다.

해당 아동의 어머니는 "관리비와 교육비를 내지 못해 어려운 상황이었는 데 이번 지원을 통해 다시 아이들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명기 교육이동복지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보의나눔은故김수환 추기경이 바랐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나눔으로써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법정기부금단체다. 질병, 사고, 실업, 임금체불 등으로 긴급 생계비가 필요한 근로빈곤 여성 가정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공덕면, 관내 30개소 경로당 순회방문

김제시 공덕면(면장 천만영)은 마현리 남당마을을 시작으로 관내 30개소 경로당을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에 걸쳐 순회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경로당 방문은 마을 어르신께 취임인사와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을 인사소개 해드리고 시정 주요시책을 홍보하며 주민들의 의견사항이나 애로사항에 대해 듣는 소통의 장이 됐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 대처 방안으로 경로당 이용자 어르신에 대한 감염병 예방교육과 생활방역 일환으로 주민 모두가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수칙, 생활속 거리두기 등을 적극 참여하도록 당부했다.

이어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재개 행

동수칙' 및 "어르신들 무더울 땀 이렇게 하세요!"와 "방문업체 출입금지"를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직접 부착 및 설명을 해주어 어른들로 하여금 조금 더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어 어르신들이 활발하게 노후생활을 활기차고 보람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부양받는 노인에서 스스로 책임지는 노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만영 공덕면장은 "이번 방문으로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청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행정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